

헌법 어겨가며…아베 군국주의화 ‘박차’

공대지 미사일 연쇄 도입 추진

북한 등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교전권 포기한 평화헌법 위배

일본이 재침-ER(JASSM-ER) 외에도 지상 공격이 가능한 또다른 전투기 탑재 순항미사일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예상될 경우 공격할 수 있는 적기지공격능력을 이집에 보유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당초 알려진 재침-ER뿐 아니라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JSM)과 장거리 대함미사일

(LRASM)에 대한 조사비 항목을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JSM은 노르웨이개발 중인 미사일로, 해상의 함정을 공격하는 공대함(空對艦)과 지상을 공격하는 공대지(空對地) 능력을 함께 갖추고 있다. 사거리는 300km 수준으로, 일본 정부는 이 미사일을 최신에 스텔스 전투기 F35에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LRASM은 사거리 1000km의 공대함·공대지 미사일이다. 위치 정보나 전술 데이터 등 외부의 정보를 활용해 정밀한 목표물 타격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도입 추진 사실이 공개된 ‘재침-ER’ 역시 공대함과 공대지 능력을 갖춘 순항미사일인데, 사거리는 900km이상으로 훨씬 길다. 재침-ER은 F-15 전투기에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들 미사일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외국 함정이 외딴섬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거점이 되는 섬의 탈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재침-ER과 JSM, LRASM이 도입되면 장거리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는 만큼, 사실상 적기지공격능력을 보유하는 셈이 된다. 적기지공격능력은 북한 등 적국의 미사일 공격이 예상될 경우 해당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교전권을 포기한 헌법 9조(평화헌법 조항)에 위배된다.

아울러 이들 순항미사일 도입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과도 배치된다.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장비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적기지공격능력과 관련해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2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 바 있어서 이들 순항미사일의 도입과 함께 추진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도입할 예정인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의 조사 비용을 1억엔(약 9억7000만원) 규모로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할 방침도 정했다.

당초 내년도에 관련 조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를 핑계로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형 살상 테러 속출 영국

이번엔 총리 암살계획 적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를 암살하려던 계획을 영국 수사, 정보당국이 저지했다고 영국 스카이뉴스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경찰은 총리실 관저에서 모종의 사제폭탄을 터뜨리고 뒤따른 혼란 때 공격을 가해 메이 총리를 살해한다는 계획을 적발했다.

스카이뉴스는 영국 런던경찰국, 국내담당 보안정보국(MI5), 영국 중서부 경찰이 몇 주 동안 추적해 테러 모의를 합동으로 저지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메이 총리의 대변인은 영국이 최근 12개월 동안 9개의 테러 음모를 좌절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런던경찰국은 대테러 사령부가 지난달 28일 남자 2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이 6일 범원에 출두할 계획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두 테러 피의자는 각각 런던 북부와 버밍엄 남동부에 사는 나이무르 자카리아 라만(20), 모하마드 아키브 임란(21)으로 신원이 확인됐다. 이들이 영국 총리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탄핵정국 심화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주(州) 주지사에서 쫓겨난 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탄핵 운동을 이끌고 있는 미하일 사카슈빌리 전(前) 조지아(러시아령 그루지야)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우크라 검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다고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경찰이 카슈빌리 연행에 반대하는 그의 지지자들에게 최루 가스를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북한인권법’ 5년 연장

북한 주민 대외정보 제공·중국 협조 촉구 등

를 고리로 전방위 대북 압박 공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0일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제지정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연장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유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특징이다.

상원 외교위가 이날 의결한 이 법안은 대북 정보유입 기기의 종류를 기존 라디오 이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 정보 공유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 매체로 확대했다.

또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향해 ▲중국 유입 난민의 대북 강제 송환 즉각 중단 ▲유엔 난민기구(UNHCR)의 제한 없는 중국 내 북한 난민 접근 허용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의회의 인식’ 형식으로 포함됐다. ‘의회의 인식’ 부분은 상정선 면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당시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됐다. /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시카고 기후 현장’ 서명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바마 “트럼프 내 흔적 지우기 못 참아”

‘시카고 기후현장’ 행사 참석

북미 50개 도시 시장단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 기후 협정(Paris Climate Accord) 탈퇴 결정에 반대하는 미국 내외 도시 시장들이 시카고에 모였다.

5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ABC방송 등에 따르면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의 주재로 화동한 북미 50개 도시 시장단은 전날부터 이틀간 교통·에너지·폐기물 관리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시카고 기후 현장’(Chicago Climate Charter)에 서명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이매뉴얼 시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 협정 탈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구 온난화”라는 글로벌 도전 과제를 각각 도시 차원에서 해결해 가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카고 기후 현장은 2025년을 어떻게 맞을지에 관한 계획”이라면서 “기후 변화에 대책 없는 트럼프 대통령

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구엘 앙헬 만세라 멕시코 시티 시장, 발레리 플랑트 몬트리올 시장, 그레고 로버트슨 밴쿠버 시장, 에드리 샌프란시스코 시장, 그레고 스탠튼 파닉스 시장, 무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 앤 이달고 파리 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 협정에 직접 서명한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특별 참석해 연설했다.

연설에 나선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은 파리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세계 유일의 나라”라며 “다행인 점은 기후 변화 위기를 파리 협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파리 기후 협정은 2015년 12월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돼 지난해 11월 발효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백악관에서 파리 기후 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미국 남세자들에게 유리하고 공정한 협정을 새로 만들기 위한 토론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센카쿠 충돌 피하자…중국·일본 ‘해공 연락망’ 설치

중국과 일본 정부가 양국 간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해공(海空) 연락 메커니즘’을 설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복수의 중일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양

국은 이날까지 이틀간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고급 사무관 레벨의 회의를 열고 두 나라 사이에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자위대와 중국군이 접근 시 연락하는 방법 등을 정했다.

교도통신은 중일 관계 개선의 흐름이 가속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평택시 토지분양 (오픈)

삼성전자 – 120만평
(미군기지 이전)

LG전자 – 110만평
(평택 항)

■ 총 7필지
1필지(200평) x 평당 130만

■ 건축 허가완료
토목·도로공사 완료

■ 투자 최적합 – 미래 값어치 평당 300만
(기타 평택 투자물건)

①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1,413평) 매가 7억

②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253평) 매가 6억

③ 평택시 서정동 (59평) 매가 9억 (건축허가 완료)

④ 평택시 지산동 (1,350만) 매가 27억5천만

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공장부지) (1,380평) 매가 8억2천 (서해안고속도로 5분)

010-6670-9800

010-7384-7800

영광주택 매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완료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

직거래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경매교육

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

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

3) 경매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찰까지 원스톱 진행

※공동 사무실 쓰실분

(무료제공)
경매교육, 컴퓨터, 책상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직업으로 하실분
공동사무실 사용하실 분
010-6670-9800

1) 남구 주월동 (4층 상가주택)
토지 71평 건물 180평
대단위 아파트단지 (코너)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4억5천

2) 북구 중흥동 (상가주택)
토지 29평 건물 40평
북구청 5분
감정가 1억 → 최저가 1억

3) 북구 양산동 (공장)
토지 1,105평 건물 1,200평
월세 2천500만 예상
감정가 40억 → 최저가 17억5천

4) 서구쌍촌동 (상가주택)
토지 41평 건물 54평
운천역 3분 (코너)
평가 1억9천 → 최저가 1억9천

5) 상무지구 (아파트상가)
토지 30평 건물 35평
감정가 1억 → 최저가 3천6백

6) 북구 우산동 (3층 상가주택)
토지 66평 건물 172평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3억2천

6) 경기도 평택시 (주택)
토지 79평 건물 38평,
송탄역 3분
감정가 5억9천 → 최저가 2억9천

7) 전주시 완산구 (3층 상가건물)
토지 265평 건물 528평
한옥마을 3분 (월세 2천이상 예상)
감정가 40억 → 최저가 28억

8) 강진군 칠량면 (공장, 창고)
토지 1,600평 건물 673평
감정가 11억 → 최저가 4억6천

9) 나주 경현동 (상가주택)
토지 600평 건물 411평
금성산 산책로 길
감정가 17억7천 → 최저가 7억9천

10) 군산시 나운동 (사우나)
토지 132평 건물 334평
사우나 운영시 월수익 2천이상 예상
감정가 21억 → 최저가 5억

11) 화순군 남면 (주유소)
토지 585평 건물 136평
감정가 5억5천 → 최저가 5억5천

010-6670-9800

010-7384-7800